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들의 성지식에 미치는 효과

김 영 순*, 손 수 경*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Consciousness on Sexuality Course on University Students

Yeong-Soon Kim*, Sue-Kyung Sohn*

*Dep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s of lectures on sexuality and investigate changes in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consciousness.

Meth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50 students at K University in Busan, and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the 8th of March to the 7th of June 2004. This study was designed to be one-group pretest-posttest.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aired t-test and χ^2 -test using the SPSS 10.0 program.

Results:

1. The score of sexual knowledge increased from 14.48 before the education to 15.70 after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3.926$, $p<.001$).
2.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xual consciousness were observed in 'the extent of sexual behavior' ($\chi^2=12.584$, $p<.05$), 'the meaning of intercourse' ($\chi^2=46.014$, $p<.001$), 'the self attitude of premarital purity' ($\chi^2=84.686$, $p<.001$), 'the premarital intercourse' ($\chi^2=75.323$, $p<.001$), 'the definition of purity' ($\chi^2=23.770$, $p<.001$), 'the general premarital purity attitude' ($\chi^2=32.305$, $p<.001$), 'the conception of love, sex and marriage' ($\chi^2=38.452$, $p<.001$) and 'the premarital sex experiences' ($\chi^2=50.210$, $p<.001$).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a sexuality course has effects on increasing sexual knowledge and changing the consciousness in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Sexual knowledge, consciousness, sexuality course, university students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등의 대중매체 보급이 확대되고 이로써 인간의 생활 패턴, 청소년의 영양, 보건 상태의 향상과 사고의 변화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과거와 다른 성문화를 경험하며 여러 가지 가치 규범과 자아발달 및 자아 정체감 형성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대중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지식의 무분별한 습득과 성의 상품화로 인하여 성범죄가 증가되고 불건전한 성문화가 조장되고 있다(문인옥, 1997; 박희두, 1997; 오혜경, 2003; 이영희 등, 1997).

조명환(200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85%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 34.6%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은 자신의 성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성교육은 개인의 이전에 수용된 성의식과 지식을 진단하고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성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교육자나 성상담자 대부분이 이러한 대상자에 맞는 성교육 지식이 부족하며 고정관념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의 전달이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성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경신, 2001; 문인옥, 1997; 이영희 등, 1997; 이인숙 등, 2000).

한편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에 첫 성경험을 56.5%로 가장 많았고 고교 재학 중 경험이 37%있었으며 대상자는 교제중인 사람이 75%였고 남학생의 경우 15.2%가 모르는 사람이며 성관계 동기가 '서로 합의하에' '생각 없이 어찌다가'의 순서로 응답하였다(이정희 등, 2003). 이는 최근 대학가에서 술자리에서 만나서 성관계 까지 이어진다는 'one night stand'(정재서, 2004)의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며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고민에 대해 성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구, 대중매체를 통해 성지식을 얻고 고민을 해결하고 있었다(정희정, 2001). 그러므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신입생시기부터 필요하다.

현재 대학에서 교육 방법으로는 특강, 정규과목,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나 성에 관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 부족과 시청각 자료의 개발과 보급의 부족, 적절한 교육 시간과 교육장 미비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문인옥, 1997; 오혜경, 2003; 이인숙 등, 2000).

지식과 태도는 교육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무지로 인한 성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대학생에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하고 원만한 이성교제와 미래의 결혼 생활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계수연과 문인옥, 1999; 박순선, 1993; 이인숙 등, 200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의식, 태도, 성행태와 요인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문인옥, 1997; 박희두, 1997; 이선희 등, 2000; 이영희 등, 1997; 이인숙 등, 2000)와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프로그램, 성교육 요구도 등(김경신, 2001; 오혜경, 2003; 이규은과 김남선, 2000; 이정희 등, 2003; 정경순, 2003)의 양적 연구와 20대 남자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권기범, 2001; 오은규, 2002; 오혜경, 2001)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지식과 성의식 변화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인 대학생에게 잘 계획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된 교육자가 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미치는 대상자의 성지식 및 의식 변화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성교육 대안을 모색하고, 성윤리와 성가치관에 관한 합리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성관련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성지식과 성의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학생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관련 교양 강좌 후 성지식과 성의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3. 용어 정의

1) 성지식

성지식이란 생식에 관한 본능이나 기능에 관한 명료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인식과 객관적으로 확증된 성과를 말한다(이기문, 2000). 본 연구에서는 김영순(1999), 이옥철(1990), 최혜영(1998)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고안한 성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성의식

성의식이란 성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신념, 관점, 태도, 행동 및 가치관 즉 개인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관념을 말한다(정경순, 2003).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의 기준,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임신중절, 성경험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K대학에 개설된 성관련 강좌를 수강한 학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55명 중 질문지를 불완전하게 작성한 5명을 제외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이다.

3. 연구 도구

1) 교육방법 : 성관련 강좌

교육방법은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 강좌로서 성에 관련된 교재를 참고하여 일주일에 2시간씩 총 13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교육 방법은 강의, 비디오 시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제작한 영상 보조 자료인

C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범으로 피임 기구 종류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실습하였으며, 낙태 교육 후에는 토론 후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각 강좌의 주제는 성의 개요, 성의 해부학(남성과 여성), 성병과 에이즈, 생명의 탄생(임신과 출산), 피임과 낙태, 음란물과 성도착, 성폭력과 성희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측정 도구

(1) 성지식

성지식은 김영순(1999), 이옥철(1990), 최혜영(1998)의 성 지식에 관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선행 문헌의 고찰과 성교육 전문가 1인과 간호학 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성생리 6개 문항, 임신과 출산 5개 문항, 피임 2개 문항, 성폭력 3개 문항, 성병 3개 문항, 성기능 장애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옳은 진술에 대해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으로 측정하여 총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R formula로 측정된 결과 .96으로 나타났다.

(2) 성의식

성의식은 정희정(2001)의 성의식에 관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10개 문항으로 성행동 기준, 성관계 의미, 성, 사랑과 결혼, 혼전 순결, 혼전 관계, 혼전 성경험, 혼전 동거, 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3월 8일부터 2004년 6월 7일 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실험연구의 사전조사는 2004년 3월 8일 교육을 실시하기 전 강좌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성지식과 성의식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직접 배부 후 회수하였다. 교육 방법은 본 연구자가 일주일에 2시간씩 총 13회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연구의 사후 조사는 강좌 종료 1주일 후인 2004년 6월 7일에 연구자가 성지식과 성의식 질문지를 배부 후 직접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교육전후 성지식의 변화는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교육전후 성의식의 변화는 빈도, χ^2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으로 총 50명이었다. 나이는 19-20세가 15명(30%), 21-23세는 24명(48%), 24-25세가 11명(22%)이었고, 학년은 2학년 29명(58%), 3학년 8명(16%), 4학년 13명(26%)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48명(96%), 대가족이 2(4%)이고 거주상태는 자택이 47명(94%)이며 종교는 불교가 19명(38%), 천주교 5명(10%), 기독교 4명(8%)이고 무교 19명(38%)이었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가 35명(70%), 개방적인 분위기가 15명(30%)이고 현재 교제중인 이성 친구는 '있다'가 25명(50%), '없다'가 25명(50%)이었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46명(92%)이었으며 성 정보 취득 경로는 초등학교 때는 주로 선생님 25명(50%), 대중매체 10명(20%), 중학교 때는 선생님 36명(72%), 대중매체 21명(42%),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29명(58%), 대중매체 23명(46%), 대학교 때는 대중매체가 14명(28%)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교육 전후의 성지식 변화

대상자의 성지식은 교육 전 평균 14.48±1.89점, 교육 후 15.70±1.3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26$, $p<.001$).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

(N = 50)

특성	영역	N(%)	
성별	남	25(50)	
	여	25(50)	
나이	19-20세	15(30)	
	21-23세	24(48)	
	24-25세	11(22)	
학년	2학년	29(58)	
	3학년	8(16)	
	4학년	13(26)	
가족형태	핵가족	48(96)	
	대가족	2(4)	
거주상태	자택	47(94)	
	자취(하숙)	3(6)	
종교	불교	19(38)	
	기독교	4(8)	
	천주교	5(10)	
	무교	19(38)	
	기타	3(6)	
성에 대한 분위기	보수적	35(70)	
	개방적	15(30)	
교제중인 이성친구	있다	25(50)	
	없다	25(50)	
성교육 받은 경험	있다	46(92)	
	없다	4(8)	
성교육 정보 취득 경로*	초등학교	가족	3(6)
		선생님	25(50)
		친구	3(6)
		대중매체	10(20)
중학교	가족	3(6)	
	선생님	36(72)	
	친구	7(14)	
	대중매체	21(42)	
고등학교	가족	3(6)	
	선생님	29(58)	
	친구	7(14)	
	대중매체	23(46)	
대학교	가족	4(8)	
	선생님	5(10)	
	친구	8(16)	
	대중매체	14(28)	

* 중복 응답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생리 문항에 관한 점수가 교육 전 4.24점, 교육 후 4.62점($t=-2.161, p=.036$)이었으며 임신과 출산 문항의 점수가 교육 전 2.84점, 교육 후 3.30점($t=-3.673, p<.001$), 성폭력 문항이 교육 전 2.53점, 교육 후 2.78점($t=-2.471, p=.017$)으로 교육 전 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성병, 피임과 유산 및 성기능 장애 문항은 교육 전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3. 대상자의 교육전후 성의식 변화

대상자의 성의식의 변화에 대한 교육전후의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성행동범위에 대한 견해에서 교육 전 '성관계'라고 9명이 답하였고 교육 후에도 같은 답을 한 대상자는 5명이었고, '진한 애무'는 교육 전 31명이 답하였으나 교육 후 응답자 중 22명만 같은 답을 하였다. '입맞춤, 가벼운 포옹'은 교육 전 8명 응답자 중에서 교육 후 2명이 동일 응답을 하였고, '손잡거나 어깨동무'는 교육 전 2명이었으나 교육 후 응답자 중 0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12.584, p<.05$).

성관계의 의미에 대한 대답은 '쾌락을 위한 수단'이 교육 전 6명이었으나 교육 후 응답자 중 1명이 동일 응답하였고 '생식을 위한 수단'은 교육 전 3명에서 교육 후 1명으로 같은 답을 하였으며, '사랑의 표현'이라고 교육 전 21명이 답하였으나 그 중 교육 후 15명이 응답하였다. '남녀 결합의 성스러운 행동'은

교육 전 20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동일 응답에 15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46.014, p<.001$).

성, 사랑,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결혼 전제로 성관계가능'이 교육 전 13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7명이 동일 응답하였으며 '사랑한다면 성관계 가능'이 교육 전 27명에서 교육 후 동일 응답에 대해 21명으로 변화하였다. '결혼 후 가능'이 교육 전 8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6명으로, '성관계는 사랑과 별개'는 교육 전 2명이 대답하였으며 교육 후 그 중 0명이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38.4523, p<.001$).

순결의 정의는 '육체적 순결'이라고 교육 전 4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2명이 같은 답을 하였고 '정신적 순결'은 교육 전 응답자 11명 중에서 교육 후 5명이 동일 응답을 하였다. '육체와 정신적 순결의 결합'이라고 교육 전 33명이 답하였으나 교육 후 그 중 29명의 응답으로 변화하였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교육 전 2명이었으나 교육 후 전부 '육체와 정신적 결합'이라고 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23.770, p<.001$).

일반적인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 지켜야한다'가 교육 전 24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21명이 응답하였으며 '여자가 더 지켜야한다'는 교육 전 10명에서 교육 후 6명이 같은 답을 하였다. '남자가 더 지켜야한다'는 교육 전 2명이었으나 교육 후 '남녀 모두와 여자가 더 지켜야한다'고 다르게 응답하였

<표 2> 교육전후의 성지식의 변화

(N = 50)

변수(문항 수)	교육 전 M±SD	교육 후 M±SD	paired t	p
성 지식 (20)	14.48±1.89	15.70±1.33	3.926	.000
영역별 문항				
성 생리 (6)	4.24±1.15	4.62±.90	-2.161	.036
임신과 출산 (5)	2.84±.77	3.30±.68	-3.673	.001
성폭력 (3)	2.53±.58	2.78±.42	-2.471	.017
성병 (3)	2.26±.49	2.32±.62	-.685	.497
피임과 유산 (2)	1.62±.67	1.74±.44	-1.000	.322
성기능 장애 (1)	.98±.14	.94±.24	1.000	.322

으며 '지킬 필요가 없다'에서 교육 전 14명의 응답자 중 6명이 교육 후 같은 응답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32.305, p<.001$).

자신의 혼전 순결에 대한 견해는 교육 전 '반드시 지켜야한다'로 응답한 14명 중 교육 후 10명이 같은 답을 하였으며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교육 전 32명 중 교육 후 27명으로 변화하였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에서 교육 전 3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2명이 응답하였으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교육 전 후 1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84.686, p<.001$).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매우 찬성'이 교육 전 3명에서 교육 후 2명으로 변화하였으며 '모르겠다'는 교육 전 11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4명(36%)이 같은 답을 하였다. '약간 반대'에 대한 교육 전 응답은 14명 이었으나 교육 후 이들 중 5명으로 변화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73.191, p<.001$).

혼전 성경험에 대한 견해는 '내가 순결하므로 용서 못함'이 교육 전 5명에서 교육 후 '과거이므로 상관 없음'으로 2명이 상이하게 응답하였다. '나와 상관

없이 용납할 수 없다'는 교육 전 5명이 응답하였으나 그 중 3명이 같은 응답을 하였다. '과거이니까 상관없다'고 응답한 33명 중 교육 후 28명이 동일 대답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50.210, p<.001$).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찬성'은 교육 전 3명에서 교육 후 모두 '약간 찬성'으로 바뀌었으며 '모르겠다'는 교육 전 9명의 응답자 중 교육 후 4명이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약간 반대'의 의견을 교육 전 20명이 응답하였으나 교육 후 6명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chi^2=30.530, p=.002$).

임신중절에 대한 견해에서 '의학적인 이유 외는 절대 반대'가 교육 전 3명에서 교육 후 1명이 동일 응답을 하였으며 '중절을 피하고 출산해야한다'는 교육 전 19명의 응답자 중 9명이 교육 후 응답하였다. '원하지 않으면 임신 중절 가능'이라고 교육 전 23명이 응답하였으나 교육 후 13명이 같은 응답을 하였으며 '여성 자신이 원하면 해도 된다.'라고 교육 전 5명이 응답하였고 교육 후에는 0명이 응답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chi^2=12.568, p=.183$)<표 3>.

<표 3> 교육 전후의 성의식 변화

(N = 50)

항목	구분	실험 전 N(%)	실험 후 N(%)	χ^2	p
성행동의 범위	성관계	9(18)	9(18)	12.584	.050
	진한 애무	31(62)	32(64)		
	입맞춤, 가벼운 포옹	8(16)	9(18)		
	손잡거나 팔짱 ,어깨동무	2(4)	0		
성관계의 의미	쾌락을 위한 수단	6(12)	2(4)	46.014	.000
	생식을 위한 수단	3(6)	3(6)		
	사랑의 표현	21(42)	24(48)		
	남녀 결합의 성스러운 행동	20(40)	21(42)		
성, 사랑,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전제로 성관계	13(26)	9(18)	38.452	.000
	사랑한다면 가능	27(54)	28(56)		
	결혼 후에만 가능	8(16)	9(18)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	2(4)	4(8)		

항목	구분	실험 전 N(%)	실험 후 N(%)	χ^2	p
순결의 정의	육체적 순결	4(8)	3(6)	23.770	.001
	정신적 순결	11(22)	10(20)		
	육체와 정신 순결의 결합	33(66)	37(74)		
	아무런 의미가 없다	2(4)	0		
일반적인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	남녀 모두 지켜야한다	24(48)	26(52)	32.305	.000
	여자가 더 지켜야한다	10(20)	13(26)		
	남자가 더 지켜야한다	2(4)	2(4)		
	남녀 모두 지킬 필요 없다	14(28)	9(18)		
자신의 혼전순결에 대한 태도	반드시 지켜야한다	14(28)	13(26)	84.686	.000
	지키지 않을 수 있다	32(64)	32(64)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6)	4(8)		
	지킬 필요가 없다	1(2)	1(2)		
혼혼전 성관계에 대대한 견해	매우 찬성	3(6)	2(4)	73.191	.000
	약간 찬성	16(32)	24(48)		
	모르겠다	11(22)	8(16)		
	약간 반대	14(28)	10(20)		
	매우 반대	6(12)	6(12)		
혼전 성경험에 대한 견해	내가 순결하므로 용서 못함	5(10)	4(8)	50.210	.000
	나와 관계없이 용납 못함	5(10)	5(10)		
	나의 경험으로 용서	7(14)	6(12)		
	과거이니까 상관없다	33(66)	35(70)		
혼전 동거에 대한 견해	매우 찬성	3(6)	0	30.530	.002
	약간 찬성	15(30)	22(44)		
	모르겠다	9(18)	10(20)		
	약간 반대	20(40)	9(18)		
	매우 반대	3(6)	9(18)		
임신중절에 대한 견해	의학적 이유 외 반대	3(6)	12(24)	12.569	.183
	출산해야 한다	19(38)	16(32)		
	임신중절 가능	23(46)	20(40)		
	여성이 원하면 가능	5(10)	2(4)		

IV. 고찰

본 연구는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의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관련 강좌 이수 전후 성지식의 변화는 교육 전 14.48점에서 교육 후 15.70점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이인숙 등(2000)과,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 최근 대학생의 성지식에 대한 점수가 29점에 15.42점, 25점에 19.6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교육 전 점수가 비교적 높았고, 성관련 강좌로 인하여 성지식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건 교사에 의한 성교육 강화와 대중 매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초, 중, 고교 시기에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의 습득이 곧 청소년의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영희 등(1997)과 이인숙 등(2000)의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에서 피임, 성병, 성행동, 성 심리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이희정 등(2003)과 정희정(2001)의 성에 관련된 경험유무와 첫 경험에 관련된 조사에서 주로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때 첫 경험을 한다고 하였으며, 성경험 후 문제점으로 피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불안과 상대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병, 피임과 유산 및 성기능 장애 문항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미비한 점은 문항의 수가 다소 부족한 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할 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전에 많은 성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전 성교육 지식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영할 때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교육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며, 피교육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토론은 물론 실제 생활과 연계된 교육내용 및 관련 영상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전후 성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성행동 범위에 대한 견해는 정희정(2001)의 연구에서 성행동

기준을 진한애무, 입맞춤, 가벼운 포옹, 성관계의 순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의 교육 전 의식에서는 진한애무, 성관계, 입맞춤, 가벼운 포옹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대학생들 간에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관련 강좌를 통해 교육 전후에 성의식에 변화가 있음으로 나타나 교육에 의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건전한 성문화의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화 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성관계에 대한 견해에서 정희정(2001)의 연구 결과 '사랑의 표현'이 64.3%, '남녀 결합의 성스러운 행동'이 19.3%로 응답하였으나 교육 전 본 연구의 의식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42%, '남녀 결합의 성스러운 행동'이 40%로 성관계를 남녀의 사랑에서 비롯된 성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 의식에 변화가 있음으로 나타나 이는 대학생들이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성문화의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성, 사랑, 결혼에 대한 견해를 '사랑한다면 성관계 가능'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 가능' '결혼 후 성관계 가능'의 순으로 응답한 정희정(2001)의 연구와 동일한 순서로 대답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와 성문화의 급증으로 인해 성, 사랑 그리고 결혼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성의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강좌를 통해 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가짐으로써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에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 교육을 시행하기 이전에 성에 대한 남녀 각각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준비하고, 이러한 잘 준비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성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순결의 정의에 대해 정희정(2001)의 연구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순결의 결합'이 53.4%, '정신적 순결'이 32.5%로 나타났으며 성경험 유무에 따라 경험이 있는 집단은 '정신적 순결'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 전 본 연구와 동일한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순결의 의미가 성개방과 남녀평등 문화, 성범죄의 급증 등에 의해 의식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순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혼전 순결에 대한 태도에서 윤인숙 등(2003)과 조명환(2004)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가 53.7%, 57%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8%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교육을 통해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교사상이 바탕인 우리나라에서의 혼전 순결은 학교, 가정, 사회에서 순결의 중요성을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문화의 변화로 순결을 터부시하는 풍조에서 성관련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남녀의 성에 대해 남녀평등의 의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관련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이성관계의 기초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혼전 순결에 대한 견해는 정희정(2001)의 연구에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가 60%,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23.1%로 본 연구의 결과인 64%, 28%와 비슷하게 응답하였으나 자신의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여 성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의한 의식 변화가 있으므로 가정, 학교와 사회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남녀평등의 의식 구조와 성문화 그리고 정확한 성 윤리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혼전 성관계의 견해로는 교육 후 보수적인 견해에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조명환(2004)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순결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정희 등(2003)은 62.3%가 결혼에 관계없이 사랑하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정희정(2001)의 연구결과 50.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강좌의 효과라기보다는 최근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의 인기 연속극에서 대학생의 동거와 계약결혼이라는 신 풍속을 다루게 되면서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과거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전히 혼전 성

관계는 준비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임신, 상대방의 매력 상실, 타인의 시선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성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어진다.

혼전 성경험에 대해 조명환(2004)은 '미리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이해하겠다.'가 49.2%, '애인으로서 생각하지만 배우자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29.7%로 교육 전 본 연구의 '과거이니 상관없다'가 66%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변화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성교육자들은 피교육자들과 세대 차이로 인해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 일방적인 강조를 함으로서 피교육자들에게 혼돈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오히려 숨겨거나 폐쇄적인 심리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들은 세대 간의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건강한 인간관계의식과 성문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혼전 동거의 견해는 교육 전후에 부정적인 견해에서 긍정적인 견해로 변화하였는데 조명환(2004)의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 41.4%, '기회가 되면 하겠다'가 27.8%로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결과와 같았다. 이는 대학생이 되면서 주거에 변동이 생겨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텔레비전 연속극 등에서 혼전 동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혼전 동거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성 가치관을 확인해 보고, 이러한 혼전동거의 문제점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신중절의 견해는 정희정(2001)의 연구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이면 중절가능'이라고 51.2%가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6%로 비슷한 결과였지만 교육 후 40%로 감소하고 '의학적 이유 외 반대'가 3명에서 12명으로 의식의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좌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되었으며 임신중절에 대한 부작용을 알게 됨으로써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의 몸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나 임신중절에 대한 반대의 견이라고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교육 과정에 생명의 소중함과 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영상매체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강좌로서 개발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성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육과정에서 수준 높은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 정보 취득의 경로가 교사, 대중 매체, 친구, 가족의 순서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수업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대화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강좌에서는 피임, 유산, 성병과 성기능 장애 등 실제 생활과 관련된 지식이 포함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받아 온 성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노력과 지식 및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자들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 사회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고 건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건강한 남녀와 부모로서 자녀의 성교육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관련 강좌가 성지식과 성의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로서 자료 수집 기간은 2004년 3월 8일부터 2004년 6월 7

일까지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 소재 K 대학의 성관련 교양 강좌를 수강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50명 이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성에 관련된 교재와 본 연구자가 작성한 교안과 교재, 영상매체와 모형을 이용하여 주당 2시간씩 13회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성지식에 관한 20개 문항과 성의식에 관한 10개 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χ^2 -test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총 50명으로 2-4학년인 19-25세 연령의 남학생 25명, 여학생 25명이었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핵가족의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성교육의 정보 취득은 초. 중. 고학년까지는 선생님, 대중매체의 순이었으나 대학교에서는 대중매체, 친구의 순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성지식은 교육 전 평균 14.48±1.89점, 교육 후 15.70±1.3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별로는 성생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폭력은 교육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병, 피임과 유산 및 성기능 장애는 교육 전과 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대상자의 성의식의 변화에 대한 교육 전후의 결과는 성행동 범위, 성관계의 의미, 성, 사랑, 결혼에 대한 태도, 순결의 정의, 일반적인 혼전 순결, 자신의 혼전 순결, 혼전 성관계, 혼전 성경험, 혼전 동거에 대해 교육 후 성의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지만 임신 중절에 대한 견해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성관련 강좌가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강좌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시로 성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들의 성의식과 행동이 변화되어 건전한 성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에게 적합한 주제를 반영한 성지식 도

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계수연, 문인옥 (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6(2), 137-155.
- 권기범 (2001). 20대 미혼남성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경신 (2001).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81-201.
- 김영순 (1999).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성교육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 문인옥 (1997).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박순선 (1993).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의 성교육 실시 전 후 성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희두(1997). 대학생의 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 학생생활 연구지, 13, 95-125.
- 오은규 (2002). 미혼 남성의 성에 관한 연구(성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오혜경 (2001). 한국여대생의 성인식에 대한 문화 기술지.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교육 요구 도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 163-178.
- 윤인숙, 이현주, 김정숙, 박은규 (2003). 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23-50.
- 이규은, 김남선 (2003). 성관련 강좌 이수 전후 대학생들의 성 고정관념과 성 태도의 변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1), 5-17.
- 이기문 (2000). 동아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 이선희, 한성현, 임여선, 조희숙, 채유미, 유승현 (2000). 미혼남녀의 성 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 분석.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1-15.
- 이영희,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순남,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옥철 (1990). 서울 시내 일부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도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인숙, 김영희, 전미양 정미숙 (2000).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82-395.
- 이정희, 김인숙, 이재경 (2003). 서원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지, 21, 31-67.
- 정경순 (2003). 미혼모의 성에 대한 인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구.
- 정재서 (2004).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 신화 1 (중국편). 서울: 황금부엉이.
- 정희정 (2001). 미혼 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명환 (2004). 대학생의 성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학생 생활연구지, 32, 5-37.
- 최혜영 (1998). 중학생의 건전한 성의식 및 태도형성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